

감독은 치과의사·골키퍼는 영화감독... 드라마 '겨울왕국'



27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의 알리안츠 리비에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 16강전에서 아이슬란드가 잉글랜드를 2-1로 제압하고 8강 진출에 성공했다. 경기가 종료된 후 환호하는 아이슬란드 선수단의 모습. /연합뉴스

아이슬란드 '축구중가' 잉글랜드 꺾고 유로 첫 출전서 8강
광주 광산구보다 적은 인구 33만... 축구 선수 백여명
프로리그도 없어... 내달 4일 프랑스와 4강 놓고 격돌



마치 2002년 월드컵 4강에 진출한 한국을 보는 듯하다. '축구변방' 아이슬란드가 '축구 중주국' 잉글랜드까지 꺾고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이하 유로 2016)를 삼키고 있다. 유로 본선 진출 자체가 처음인 아이슬란드는 28일(한국시간) 잉글랜드와 16강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둬 8강에 진출했다. 사실 아이슬란드의 선전을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이번이 매우 얇은 데다 겉으로 드러난 전력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약 33만 명으로 광주시 광산구(약 40만 명)보다 적다. 국내 프로리그는 아예 없고, 해외 진출 선수와 아마추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백여 명 수준이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2011년부터 자국 출신 해미르 할그림손(49)감독과 스웨덴 출신 라르스 라에르베크(68)감독이 대표팀을 함께 지휘하고 있다. 할그림손 감독의 이력은 매우 특이하다. 그의 본업은 축구 감독이 아니다. 그는

아이슬란드의 휴양지, 해마마에이 섬에서 현직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골키퍼 하네스 할도르손(32)은 영화감독이다. 그는 뮤직비디오 제작에 전념하기 위해 4년 전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하기도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대회 전 아이슬란드의 조별리그 진출 확률을 47.5%로 예상했고, 8강 진출 확률은 14.3%로 평가했다. 아이슬란드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나라는 웨일스, 북아일랜드, 알바니아뿐이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약점을 조직력으로 메웠다. 나라 이름 같이 얼음처럼 단단한 중앙 수비의 힘으로 주요 팀들을 차례대로 격파했다. 아이슬란드는 조별리그 포르투갈, 헝가리전에서 점유율 30%대에 그쳤지만 연달아 무승부를 기록했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오스트리아를 2-1로 꺾으면서 유로 첫 본선 무대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잉글랜드전에서도 점유율은 32%에 불과했지만, 날카로운 역습으로 승리를 따냈다. '조용한 나라' 아이슬란드는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아이슬란드는 수도 레이카비크 시내 곳곳을 폐쇄하고 거리 응원전을 펼쳤는데, 시내 합동응원구역 EM 스퀘어에 모인 사람만 최소 1만 명이 넘었다. 1만 명은 아이슬란드 인구의 약 3%다. TV 시청률도 엄청나다. 현지 언론 불건 퍼핀은 "16강 진출을 확정된 조별리그 오스트리아전 TV 시청 점유율은 99.8%, 시청률은 68.5%를 기록했다"라면서 "잉글랜드전 시청률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이슬란드의 역사적인 장면을 직접 관람하기 위해 개최국 프랑스까지 날아간 현지 팬들도 많다. 아이슬란드의 한 사업가는 2300만 크라운(약 2억 2000만원)을 들여 180인승 전세 비행기를 대절해, 다른 팬들과 원정응원을 떠났다.

프랑스와 8강전이 열리는 7월 4일 주변의 프랑스행 비행기 티켓 가격은 전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아이슬란드 현지 언론은 "기존 2만 4천 646크라운(약 23만원)을 하던 비행기 티켓 가격이 8만 9천 925크라운(약 85만원)까지 올랐다"라며 "앞으로 가격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잉글랜드전을 찾은 아이슬란드 원정 팬은 약 3만 명으로 국가인구의 약 9%를 차지한다. 한편,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는 스페인(6위)과의 16강전에서 2-0으로 이겼다. 2008년과 2012년 대회에 이어 유로에서 3회 연속 8강에 오른 이탈리아는 7월 2일 독일(4위)과 준준결승을 치르게 됐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과 2012년 유럽선수권에서 연달아 우승하며 '무적 함대'의 위용을 과시한 스페인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타이를 방어'에 실패하며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

망치·농구공·A4용지... 훈련도구 뿔이 중헌디

KIA 이색훈련 속으로
단순히 공을 치고 던지는 것만이 훈련은 아니다. '호랑이 군단'에서는 망치, 농구공, 기록지 등을 활용한 이색 훈련도 진행된다. 지난 주말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KIA 타이거즈의 이색 훈련이 화제가 됐다. 김기태 감독이 그 중심에 있었다. 첫 번째 훈련은 '망치 훈련'이었다. 25일 훈련시간에 김기태 감독이 망치를 들고 야구공을 때리는 시범을 보인 뒤 내야수 윤완주가 이를 따라하는 모습이 방송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다. 야구배트가 아닌 망치를 통한 타격 훈련. 윤완주는 김기태 감독으로부터 "공을 끝까지 보고, 공이 올 때 때려라"는 주문

망치 타격, 손목 임팩트 살리고
밸런스 잡으려 꽃게처럼 뛰고
농구공 잡으며 포수 하체 단련
을 받았다. 배트보다 때리는 면이 작은 망치를 통해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었다. 손목을 활용한 임팩트까지 더할 수 있는 훈련. 똑같이 공을 때리더라도 선수들에게는 지루하지 않게 새로운 감각을 느껴볼 수 있는 훈련이다. 26일에도 김기태 감독은 김주형과 '낮선 훈련'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양쪽 발끝을 최대한 바깥으로 향하게 해 무릎을 굽힌

뒤 옆으로 경총경총 뛰는 훈련이었다. 양손은 쟁반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꽃게가 걷는 것 같아서 이날 화제가 됐다. 이 훈련의 목적은 '밸런스'였다. 김기태 감독은 "이 자세를 하면 발가락 끝까지 힘을 줘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밸런스를 위한 훈련이다"고 설명했다. 농구를 위한 훈련이다. 배트보다 때리는 면이 작은 망치를 통해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었다. 손목을 활용한 임팩트까지 더할 수 있는 훈련. 똑같이 공을 때리더라도 선수들에게는 지루하지 않게 새로운 감각을 느껴볼 수 있는 훈련이다. 26일에도 김기태 감독은 김주형과 '낮선 훈련'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양쪽 발끝을 최대한 바깥으로 향하게 해 무릎을 굽힌

장비를 하고 자세를 잡은 포수들은 타케시 코치가 던지는 농구공을 품어야 한다. 야구공보다 훨씬 무거운 농구공을 잡으면서 하체의 중심을 잡아 흔들리지 않고 포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27일에는 '총격요법'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 시간에 이흥구가 A4 용지를 들고 앉아있는 다케시 코치 위로 길게 공을 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훈련의 포인트는 종이였다. 다케시 코치가 들고 있는 종이에 포수 도루 저지율이 적혀있었다. 올 시즌 두 차례 도루 저지 성공에 그친 이흥구에게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총격요법'이었다. 즐겁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 호랑이들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만루 킬러'곽정철 "빨리 끝내려고요"

덕아웃 T 특특

▲빨리 끝내려고요= 만루 사나이가 된 곽정철이다. 곽정철은 지난 NC와의 3연전에서 두 차례 출격했다. 25일 무사 만루에서, 26일에는 1사 만루 상황에서 등판했다. 결과는 모두 무실점이었다. 만루 위기를 두 차례 연속 깔끔하게 막은 곽정철의 소감은 싱거웠다. "(경기) 빨리 끝내려고요."
▲비가 안 오네요= 임창용이 하늘의 도움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 날을 맞게 됐다. 임창용의 해외 원정 도박 스캔들 징계가 끝나는 날은 KIA의 73번째 경기 날이다. 날짜에는 변수가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2~3경기 정도 미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주 KIA는 비를 피해 6경기를 모두 치렀다. LG와

의 경기가 열리는 주중 3연전의 비 예보도 사라지면서 비 걱정을 했던 임창용의 복귀는 주말 고척돔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임창용은 일본과 미국 무대에서 사용했던 12번을 달고 고향팀 마운트에 오른다. 배합전이 선배를 위해 기꺼이 12번을 양보했다.
▲막치고 싶니?= 타고난 수비에 타격도 일취월장하고 있는 김호영. 하지만 아쉬운 게 있다. 삼진(47개)에 비해 한창 부족한 볼넷(11개), 김기태 감독도 이 부분이 아쉽다. 김호영은 1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하는 동안에도 볼넷은 하나도 얻지 못했다. 26일 연속안타 행진은 중단됐지만 모처럼 볼넷 두 개를 끌라냈다. "삼진을 쉽게 당한다"고 아쉬워하던 김기태 감독은 김호영을 보자 "원스리 되면 막치고 싶니?"라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김여울기자 wool@